보도시점 2026. 6. 29.(월) 조간

부산중기청, 유관기관 협력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 인턴십' 본격 시동

- 부산중기청·남부발전·부산글로벌도시재단 공동, '2026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개최
- 베트남, 일본 등 8개국 유학생 14명, 부산 지역 우수 중소기업 13개사에 매칭 및 현장 실무 돌입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한국남부발전,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년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오전 더파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 14명과 이들을 맞이할 부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은 글로벌 인재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 기업별 직무 소개, 비자 관련 법령 안내 및 근로계약서 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2회차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사업'은 부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된 기업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매칭해 주는 지역 정주 유도형 상생 프로그램이다.

이번 인턴십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전 세계 8개국에서 온 우수 유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됐다. 이들은 기계·조선 기자재, 스마트 물류, 바이오, IT 등 부산의 핵심 전략 산업을 이끄는 우수 중소·벤처기업 13개사에 배치되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마케팅, 해외 영업,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시스템이 돋보인다. ▲부산중기청은 인턴십 총괄 기획 및 지역 우수 중소기업 모집· 선정을 담당했으며, ▲한국남부발전은 유학생들의 체재비 및 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유학생 모집 및 생활 정주 지원 전반을 맡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한 외국인 유학생(부산대 재학)은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부산의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인턴십을 발판 삼아 졸업 후에도 부산에 계속 정주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업 측 관계자 역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가 절실했는데 구인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부산중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검증된 유학생을 직접 매칭해 준 덕분에 향후 수출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단순한 단기 인턴십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연계 및 추가 채용 지원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경수 (051-601-5120)
		담당자	주무관	권혁선 (051-601-51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